

어릴 적, 외삼촌과 함께 산길에서 보았던
다람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상수리나무 아래 다람쥐 굴이 있었다.
다람쥐 굴 바로 앞에 어미 다람쥐 한 마리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커다란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람쥐 굴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어미 다람쥐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람쥐 굴 안에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삼촌이 말했다.
독사가 어미 다람쥐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미 다람쥐도 독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람쥐를 공격하려고 커다란 독사가 머리를 막 치켜들 때였다.
놀랍게도 어미 다람쥐가 독사에게 먼저 달려들었다.
어미 다람쥐는 앞 이빨로 독사 몸을 꼭 물었다.
어미 다람쥐의 성난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너하고도 싸울 수 있어....."

다람쥐에게 몸통을 물린 독사가 파다닥파다닥 미친 듯 날뛰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외삼촌이 말했다.

"저..... 저놈 좀 보게. 겁도 없이 뱀을 무네.
허기사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로 무는 법이지....."

잠시 후, 독사가 기다란 몸을 비틀어
단박에 어미 다람쥐를 물어 버렸다.
"외삼촌, 다람쥐가 죽었어요. 어떻게 좀 해 봐요. 빨리요....."

"안 돼..... 독이 오른 독사는 항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독사 이빨에 어미 다람쥐는 맥없이 무너졌다.
어미 다람쥐 배가 촛불처럼 흔들렸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돌맹이를 끝내 독사에게 던지지 못했다.
독사는 아귀아귀 어미 다람쥐를 삼켰다.

배고픔을 채운 독사는
다람쥐 굴로 들어가지 않고 유유히 숲 속으로 사라졌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2월 18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화배우 류승범 씨 다일공동체 '평생천사'로 등록



영화배우 류승범 씨('주먹이 온다' '사생결단' '야수와 미녀등)가 다일공동체(대표:최일도 목사)의 평생 천사 회원이 되었습니다.

류 씨는 최일도목사를 초청해 입주 감사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다일공동체에 1천4만원을 헌금하며 '평생천사'로 등록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좋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과 단 둘이 단칸방에서 지내던 어려웠던 시절의 첫 마음을 잊지 않으며 감사히 살겠습니다" -기독교공보-

감사편지

주님! 제가 항상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헌금도 드리고, 더욱 성실한 믿음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빛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 18일
류승범 씨

-류승범 씨가 헌금 봉투에 자필로 적은 감사기도 내용-

<p>◀말씀따라 행하기▶</p> <p>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보라 정신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해 보라 영혼을 잃을 것이다</p>	<p>◀인품따라 행하기▶</p> <p>오직 두 가지만이 무한하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p>
---	--

치를 예방하는 치약 //

불소치약

치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불소치약.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습니다.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소치약입니다.

◀그때 그랬지 ▶ 불 소 치 약

"싸" 한 강한 자극의 럭키치약에 길들여 있던 우리들에게 조금은 톡 쏘는 맛이 덜했지만 충치를 예방한다는 "불소치약"의 등장은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주먹만한 네모형의 빨래 비누를 만들던 '평화유지'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낸 불소치약, 치과에 가기 어려워 '야매'라 부르던 정식 치과의사가 아닌 아저씨에게 가서 값싸게 치료받던 시절엔 그 치약으로 이를 닦으면 결코 충치에 안 걸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불소를 넣은 치약을 보면 마당에서 이 닦고 바가지로 물을 떠 입을 행구던 기억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옵니다.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Hymn	47 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시편 13)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46장	다 같이
기도 Pray		김영길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사기 7:1-8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의 사람 "사사" (3) "숫자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56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감사와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건축헌금 어느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614	총액:\$299,629
-------------------	--------------

◆2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28	김순자		분당:권 사
4	고성일		현관(1):박일영 최재학
11	권용일	장 로	현관(2):장현중 정덕수
18	김영길	권 사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5	노은숙	안수집사	윤주야 장유진

◆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11	
18	구역모임주일 설날 구역식사친교
25	이삭줍기주일

『교회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저녁 7시

설날입니다. 설빔 차려입은 아이들의 주머니가 세뱃돈으로 모처럼 두둑해져
정월 초하루의 추위에도 골목 안을 부요케 하던 그 설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는 억지로라도 아이에게 세배를 받아야 겠습니다. 그 옛날, 철없던 아들의 세
배 받으시던 부모님의 마음이라도 품고 싶기 때문입니다.

- 1.선교회 총회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이태한 목사)
2. "설날 맞이 구역별 식사친교" : 오늘 예배 후 갖습니다.
*Hall 왼편의 공원 안, 햇빛 가리워져 시원하고 편한 나무 그늘 아래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구역별로 가져 주십시오.
- 3.갈보리동교회 창립 경 Tramping(안내문 참고)
<장소> Winderholm Tramping(왕복 1:30분) <일시> 이번주 토요일(24일)
*별 좋은 여름날, 도도한 바다를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며 맞서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우리 친목을 갖는 모임입니다.
4. 다음주일은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 "봉헌 주일입니다."
*미화 \$50 이면 50명 어린이를 수용한 배고픈 북한탁아소의 한 달간 양식이
공급 된다는 소식에 좀 더 Silver Coin을 귀하게 여기는데 힘을 기울여야
겠다는 마음 가짐입니다.
5.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모든 교우 함께 말씀 공부 하는 날까지"
*2005년 6월 첫 주간부터 시작한 민수기 강해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사실
갈수록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안일함에 빠져 성경을 읽는 일 없어야 할텐
데 하면서 깊은 밤에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겠다는 결심입니다.
6. 금요일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0분>
*마음 가라 앉은 모습으로 드리는 새벽의 기도 모습은 지순하고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 지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착한 시인들▶ 왕십리
김소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 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

여름 비 뿌려지고 지나간 자리에
마음 식은 애인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납니다. 살갓을 살짝 스쳐가는
차가움이 시골집 마루에 누워 잠
을 청할 때 지나던 그 바람 닮았
습니다. 가을이 오나 봅니다.
그때 처마 끝을 타고 내리던 우
리의 빗물은 타국의 빗물로는 할
수 없는 켜켜이 쌓인 애잔한 삶을
씻겨가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가면 편안 하게 맞아
줄 것 같은 소박한 자들의 거리
왕십리, 거기서 빗물에 씻겨 보려
는 삶의 무게들.....